

# ‘2019 대입 막차 타자’... 명지대 등 7437명 추가 모집

전국 165개 대학·수도권 600명 가톨릭·명지·성신여대 오늘까지 삼육·세종·덕성여대 23일 마감 “대학별 모집단위 파악이 최우선”

2019학년도 대학별 신입생 추가모집이 전국 165개 대학에서 7437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대학 추가모집은 23일까지, 전국적으로는 24일까지 대학별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학별 전형계획을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미등록 총원 결과에 따라 대학별 발생한 결원만큼 추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24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 6회와 정시모집 3회 등 최대 9개 전형에 추가로 주어지는 기회로 대입 합격의 마지막 기회다. 대학별 합격자 발표는 24일 오후 9시까지, 합격자 등록은 25일까지다.

모집 규모는 전국적으로 165개 대학 총 7437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약

〈2019학년도 수도권 대학 일반전형 추가모집 현황〉

대학명	모집단위(인원)	마감일
가톨릭대	인문학부(1) 사회과학부(2) 경영학부(1) 동아시아어문문화학부(2) 프랑스어문화학과(1) 컴퓨터정보공학부(1) 정보통신전자공학부(1) 생명환경학부(1)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2)	2월 20일
성신여대	독일어문·문화학과(1) 프랑스어문·문화학과(2) 심리학(1) 수학과(1) 정보시스템공학과(1) 글로벌의학과(1) 의류산업학과(1)	2월 20일
경기대	문예창작학과(1) 법학과(1) 행정학과(1) 경제학부(2) 지식재산학과(1) 경영학과(1) 토목공학과(1) 화학공학과(1) 산업경영공학과(3) 기계시스템공학과(2)	2월 21일
상명대	경영학부(1) 글로벌경영학과(1) 전기공학과(1) 융합전자공학과(2) 컴퓨터공학과(1) 의류학과(1)	2월 21일
가천대	유럽어문학과(1) 컴퓨터공학과(1) 전기공학과(2) 기약전공(2)	2월 22일
동덕여대	영어과(1) 일본어과(2) 사회복지학과(1) 아동학과(1) 경영학과(3) 경제학과(1) 응용화학전공(1) 화장품학전공(3) 컴퓨터과(1) 큐레이터학과(2) 피아노과(1)	2월 22일
덕성여대	철학과(2) 미술사학과(1) 국제통상학과(1) 사회복지학과(1) IT미디어공학과(1)	2월 23일
삼육대	경영학과(1)	2월 23일

/자료=각 사

6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계명대와 원광대, 강릉원주대 등 6개 대학에서는 의예·치의예 등 의학계열 11명을 모집한다. 선발 방식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반영이나, 신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가톨릭대·명지대·성신여대(20일),

경기대·상명대(21일), 가천대·광운대·동덕여대(22일), 덕성여대·삼육대·세종대(23일) 순으로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대학별 선발방식과 일정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지원 희망 분야 모집단위를 선별해 지원 전략을 짜는게 좋다.

수시나 정시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지만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해당 대학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산업대나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 모집단위를 선택해 소신지원할 것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추가모집을 하는 모집단위 파악이 우선이다.

추가모집에서는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요구하는 특별전형보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훨씬 많아, 우선 일반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하지만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거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또는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타 특별전형에 지원 가능 요건에 맞는지 파악하는게 좋다.

자신의 수능 성적 등을 참고해 정시전형 기준의 지원가능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대학에 따라 학생부 100%, 수능 성적 100% 등 학생 선발 방식이 다르므로 선택 모집단위와 대학이 어떻게 신입생을 뽑는지 정확히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을 지원하라”며 “더불어 정시모집 때 활용한 지원가능대학 기준표 등을 참조해 지원 가능 점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모집 대부분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정시모집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 6회, 정시 3회 외 1번 이상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대학 합격의 막차를 탈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모집 특성상 경쟁률이 높은 편이나 합격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의 인지도나 학과, 전공을 고려해 소신있게 마지막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서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다르고 짧은 기간 동안 전형이 이뤄지는만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 입학 관련 게시판을 통해 세부 모집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모집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부사관학군단 내년부터 정식 운영 “군이 부담해야 할 짐, 대학에 떠미는 꼴”

“근본적 정책 필요” 회의적 목소리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된 우수 부사관의 확충을 위해 부사관학군단(RNTC)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국방부가 일선의 현실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19일 2015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학군단이 운용되는 곳은 ▲육군-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해군-경기과기대 ▲공군-영진전문대 ▲해병대-여주대 등 6개 대학이다. 부사관학군단은 4년제 대학에서 운용 중인 학군단(ROTC)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해, 연간 30여명을 학교별로 선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단계로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2020년부터 각 군 판단하에 부사관학군단 운영 대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예비역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보여주기식일 뿐 우수 부사관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부사관은 장교들과 달리 세심한 임무수행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사관의 확대보다 병출신의 우수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부사관은 “부사관학과를 비롯한 부사관관련 제도들이 야전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각자의 전공을 통한 전문실무보다, 추후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배울 양성교육 정도에 그치는 현행제도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수부사관 인력의 확충은 부사관학군단 확대보다, 실무에 강한 우수자원을 군의 간부로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사관학과 교수는 “부사관학군단은 군이 부담해야 할 짐을 대학에 떠미는 꼴”이라면서 “별도의 학군단 시설과 민간교관의 채용 등 학군단 개설 비용 다수를 대학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사관학과 내부에서도 부사관학군단에 선발된 학생과 비선발자에 대한 선나누기와 고압적인 기수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수한 병이 부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및 자기개발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

## 국민대, 2019 올림픽평의회 사무총장에 명예박사

스포츠 발전·국가 화합 기여

국민대학교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총장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사무총장은 1998년 OCA 사무국장과 기술국장을 시작으로 집행위원을 거쳐 2005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아시아지역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활성화 ▲아시아 실내경기 및 비치 경기대회 신설 등의 업적을 비롯

전 세계 올림픽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지난 15년간 아시아지역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국가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열성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 국민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사무총장은 “소중한 학위를 준 국민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학위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OCA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난 18일 학위수여식에서 유지수 국민대 총장(왼쪽), 박찬량 대학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 자원경제학회 회장에 허은녕 서울대 공대 교수

서울대 공대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사진)가 한국자원경제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989년에 창립한 이후 에너지, 자원 및 환경 분야의 경제학 및 정책을 전공한 학자들과 기업 및 정부의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시장, 에너지 산업, 자원 안보, 기후 변화 및 정부정책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회에는 국내외 4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학 분야 최대 국제학회인 세계에너지경제학회(AAEE)의 한국지부 역할도 담당한다.



한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서울시 음악영재 교육 지원 장학생 100명 선발

건국대는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음악영재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을 위해 2008년에 시작된 장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교육영재는 교육비를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고,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유수의 콩쿠르와 예중, 예고에 합격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아동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3월 15일~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음악 인지검사와 실기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 방산수출 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확 줄인다

침체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무기 수출시 방산업체에 징수하던 국방과학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 행정개혁학회 초대 회장에 이창원 한성대 교수

한성대학교는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사진)가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한국행정개혁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행정개혁학회는 공공부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다.

학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 교수



를 맡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를 받는다.

/한용수 기자